

◆
탐방
씨리즈



〈태양농장 전경〉

태 양 농 장 이 찾 아 서!

정
영
교
△대한양계협회
연접부▽

섬유공장에서 종 1원 600여명을 거느리고 동분서주 하던 사람이 섬유업과는 전혀 상관 없는 축산업에 투신하여 그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니 기나긴 인생행로에서 몇 번의 직업 전환은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인력관리의 난관, 수출의 부진, 8.3조치의 타격으로 전원생활 꿈꾸다.

태양농장의 손사장은 63세란 나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투철한 반공정신과 확고한 준법정신을 생활신조로 삼고 젊은이를 무색케 하는 폐기와 정열로 종업원들과 함께 일하며 모든 난관을 해결해 나감을 볼 때 찬사의 마음을 얹누를 길 없었다.

손사장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로 6.25 때 가족을 이끌고 월남하여 71년도 말까지만 하여도 천호동에서 한창섬유란 상호로 종업원 600여명을 거느리고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인력관리의 어려움과 수출의 부진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데다가 설상가상격으로 8.3조치가 발표되어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고 또 앞으로의 섬유업계에 불황이 예견되므로 이 기회에 공장을 처분하고 전부터 꿈꾸고 있던 전원생활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한다.

농장부지 선정을 위하여 각지를 순방

사업을 정리하고 72년도 상반기에 농장부지 선정을 위하여 각지를 순방하면서 적지를 물색하면 중에 10월 22일 현위치인 파주군 광탄면 분수 1리에서 황무지와 다름없는 4만 5천 평의 파수원을 발견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을 만난듯이 들뜬 마음으로 그날 당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회상한다.

공장장이었던 김씨를 타농장에 실습보내고, 자신은 개간에 착수

한편 섬유공장 경영시 공장장으로 있던 조 카인 김찬선씨를 잘 아는 양계장에 실습을 보

내어 장차의 양계경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계을리 하지 않았단다.



〈육축계사에서 병아리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다〉

이렇게 하여 이곳에서 파수를 위주로 한 육축농업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켜 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천막 속에서 앞날을 설계하며 개간에 착수하였다면서 평탄하고 사질양토이며 인가와 멀리 떨어진 이곳은 방역상으로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며 축산을 하기에 최적지임을 은연 중에 강조한다.

5차에 걸친 10,000수의 입식으로 기틀 마련

우선 거처할 집과 계사건립을 서두르며 2천 여수씩 5차에 걸쳐 입식하여 육축를 성공리에 끌마치므로서 약 10,000수로 양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다.

현재 바브록 B-300=2,200수가 육축 중에 있고, 중추가 2,000여수, 산란계로서 하이섹스 4,000, 세이바 4,000수로 모두 합쳐 12,200여수 정도이지만 손사장의 맘에 대한 정열과 정성은 그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관리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1인 전담 제 실시

육축실에는 관리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종업원 한 사람이 전담하여 철저한 소독, 청결 및 방역 등 육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요즈음은 소화기 질병에 신

경을 써서 물통 및 사료통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리고 있단다.

질서정연한 모이통과 물통, 깨끗한 자리깃, 군데 군데 설치된 직사각형의 모래통, 이 사이로 탐스럽게 자라난 병아리들의 뛰노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잡념을 잊고 함께 뛰놀고 싶은 충동마저 느끼게 한다.

병아리와 함께 자며 사육기술 습득

김씨가 실습을 하고 왔다고는 하나 원체 문외한이었던 이들에게는 자신이 없어 대학을 나온 전문기사를 채용하여 함께 행동하면서 몸소 체험으로 기술을 익혔다면 병아리와 함께 젊자면서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니 몇 개월 안 되어 병아리의 울음소리나 외모만 보아도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더란다.

이렇게 세심한 관리의 결과로 현재까지 기역될만한 질병 한번 안걸렸다고 호듯해 한다.

일의 성과에 따라 보너스 제도 고려중

몸소 작업복 차림으로 종업원과 함께 일하면서 자상함과 온화함으로 지시, 감독하므로 주종관계를 떠난 부자지간 같은 친밀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 종업원이 귀띔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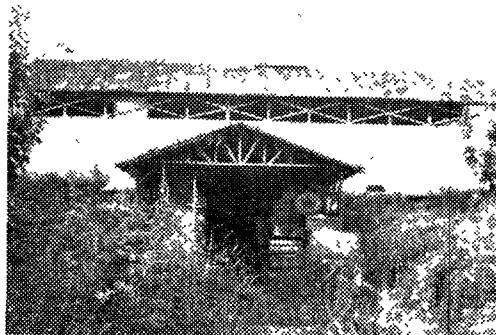
앞으로 모든 일을 각 부분별로 분담시켜 책임지우며 그 일의 성과에 따라 보너스 제도를 고려 중에 있으며, 또 이 지역이 젯트기 항공로이므로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 방지를 위하여 스피커 설치를 하면서, “산란율을 높이면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계분은 쌓이기가 무섭게 리어카에 실어 역우를 이용하여 파수원에 골고루 뿐여 적당히 건조된 후 경운기로 갈아엎어 계분처리장이 따로 없이 직접 밭에 뿌림으로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단다.

200만개 수용 규모의 저장시설 건립으로 유리한 판매

73년도의 심한 불황기에 다른 업자들은 자금회전과 마땅한 저장시설이 없어 원가에 미달되는 가격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팔았지만 손사장은 200여만원을 투입하여 과수 저장고에 봄여서 200만개 저장 규모의 지하실을 완벽하게 건립하여 저장하므로써 경기회복 때 원가 이상을 받고 팔았고 작년 노계값이 kg당 150원 할 때 사료비를 더 들여 가면서도 팔지 않고 이듬해 봄에 400원씩 받고 팔아 남보다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자랑한다.

이러한 손사장의 “원가 이하에는 절대로 팔 수 없다”는 경영 방침 때문에 자금회전이 부진하여 1개월 사료비가 300만원까지 밀린 적도 있었지만 불황기는 무사히 넘겼다 한다.



〈계란 200만개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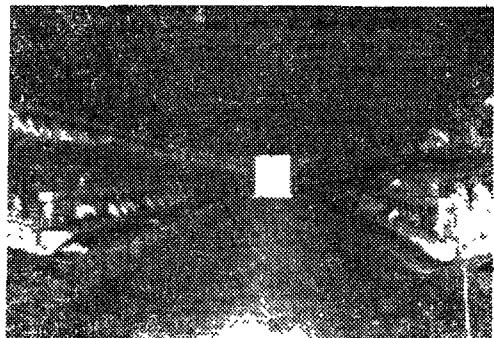
지역발전 위한 기부금 선뜻 내고 양노원 찾는 인간미도……

구입 및 판매를 직접 차를 타고 동분서주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애쓰지만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기부금을 선뜻 내놓으며 때로는 음식물을 장만하여 양노원을 찾는다고 김씨는 말한다. 한편 낙농에 관심을 두어 우선 시험사육으로 소값이 제일 쌀 때 홀스타인 슷송아지 8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해 보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겨 다시 암송아지 마리당 10만 원씩 주고 5마리를 구입하였고 계속 기회 있는 대로 구입하여 현재 젖소 30두, 한우 2두로 늘어났단다.

이렇게 사육두수가 늘어나자 사육상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번식돈 10두만 남겨두고 모두 팔았고 목초지 확보를 위하여 약 10,000평 정도 정지하여 오차드 그라스, 알팔파 등을 계속 파종 중이며 현재 옥수수 160톤분을 확보하여 놓았단다.

유축농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

앞으로의 계획 중 양계는 현재 규모에서 더 늘릴 생각은 없으나 여유가 생기면 6,000수 계사 1동을 건립하여 조금 확장해 볼 생각이고, 낙농은 빙우 50마리를 확보하여 출산되는 솟송아지는 비육시키고 암송아지는 젖뗀 후 판매할 계획이란다.



〈한달 후면 산란을 시작할 계사 내부〉

그리고 목초지 확보를 위한 파종은 충분한 양이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며 과수원의 간작으로 호밀과 보리 등을 심어 청초로 보충하며 과수는 현재의 배 2000, 사과 500, 복숭아 100, 자두 100 주의 규모에서 충실히 가꾸겠고 묘포장, 논농사, 밭농사 등을 조금씩 재배해 볼 계획이라 한다.

각종 장부의 철저한 기록으로 합리적인 경영을 피해야 할 때

모든 양축가가 그러하듯이 태양농장 역시 장부기장이 잘 되지 않고 있어 확실한 경영분석은 물론 앞으로의 계획수립에 뚜렷한 지침이 없어 합리적인 경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제부터라도 자기농장 규모에 알맞은 양식에 의한 철저한 기록유지로 최소한 앞으로의 세금부과에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은 태양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일품

종, 동일령의 1계사를 선정하여 A,B 두 공장의 사료를 비교 급여하므로서 그 산란율과 대란율을 한눈에 알 수 있으므로 우리 양계인 모두가 실시할 수 있다면 사료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4일분을 발췌하여 게재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산 란 일 지

1975. 8. 18

계 사	왕	특	대	중	소	경	합 계	파 판	비 고
2	11 2	9 29	217 170	1,031 28	82 —	— —	1,579		1,350 229
3	12	340	177	10	3	—			542
	5	588	258	24	—	—			875
	4	72	88	9	—	—	1,590		173
☆ 4	5	165	316	45	—	—		A	531
		64	141	35	—	—	771		240
	4	219	247	22	—	—		B	492
	1	68	191	21	—	—	773		281
5	39	226	62	2	—	—			329
	25	427	218	4	—	—	1,003		674
합 계							5,716		

산 란 일 지

1975. 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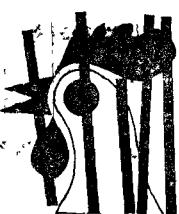
계 사	왕	특	대	중	소	경	합 계	파 판	비 고
2	1	4	68	316	48	—			437
	2	5	90	569	71	—			737
	7	23	56	300	53	—	1,613		439
3	8	315	143	5	—	—			471
		311	46	18	—	—			375
	10	195	245	20	2	—			472
	13	16	2	—	—	—	1,349		31
☆ 4	4	232	437	57	3	—		A	733
	1	20	37	10	1	—	802		69
	2	266	396	41	—	—		B	705
		25	20	7	—	—	1,559		52
5	35	205	52	8	—	—			300
	34	295	121	6	—	—			456
	13	209	96	4	1	—	1,115		359
합 계							5,636		

산 란 일 지

1975. 8. 14

계 사	왕	특	대	중	소	경	합 계	파 란	비 고
2	4 14	9 5	50 34	565 556	122 179	— —	1,538		750 788
3	5 4 2	341 361 87	127 377 106	11 68 21	2 4 —	— — —	1,516		486 814 216
☆ 4	1 1	186 33	345 86	87 39	— —	— —	778	A	619 159
	2 1	256 40	300 65	55 5	3 2	— —	739 1,517	B	616 113
5	12 39 13	191 302 200	35 83 83	2 8 5	— 2 —	— — —	975		240 434 301
합 계	5,546		

* ☆표가 비교구로서 A.B 두 사료의 합여 성적을 산란수 및 대란수로서 대략 알 수 있다.



中・大雛分譲

清淨環境에서 完壁하게 飼養管理된 有名品種을
宅의 양계장까지 안전하게 輸送.
有名品種 - 하이섹스, 바보곡, 세이바
育成方法 - 初生雛時 立갓식평사 中雛時 노친케이지
防疫計劃 - 계절적인 표준접종계획준수
發育度 - 品種別표준체중보증
輸送 - 수송상자, 도착책임
계약사육접수증

삼정농원 대표 이오형 연락처 : 양지가축약국 56-1938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별 1리 261 성약원 55-3177